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시민 반발 확산

시민단체 인권상 반납 의사 밝혀...수상 취소 비판 소송지원 日단체 광주 방문, 역사관 건립 성금 전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가운데 외교부 제동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받은 시민단체가 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시민들이 양 할머니에게 직접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반발 동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단체가 3년여만에 광주를 방문해 (가칭)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양 할머니에게 힘을 보낼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2일 성명발표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모란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지난해 수상한 단체부문 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점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취소된바 있다"면서 "올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또 다시 외교부가 일본 눈치를 보며 수상계획을 일그러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일"이며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후속절차를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반인권과 타협의 증거가 되고 양 할머니의 수상 여부가 그 잣대가 된다"면서 "양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지난해 수상한 인권상을 미련없이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해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위원장 표창 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도 직접 광주를 찾아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교류가 끊긴 지 3년만의 방문으로, 다카하시 대표는 지난 9월 나고야에서 19년 만에 무대에 다시 올려져 큰 화제를 모은 연극 '봉선화 2022'의 연출을 맡은 나카토시(73세), 연극에서 양금덕 역을 맡은 무토 요코(58세) 등과 함께 연극

배경의 주요 인물인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났다.

또 13일 오전 11시에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배상 문제에 진척이 없는 현 상황과 관련해 일본 지원단체 대표로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후대로 기억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가칭)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역사관 건립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건립 성금도 전달한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마음을 담아 '시민 훈장'을 수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열린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별세 1주기 추모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우리들의 인권상'을 시상했다. /오복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인천	0/2
서울	-1/2
대전	1/5
전주	2/7
목포	4/8
호산도	4/8
제주	7/12
춘천	-3/2
강릉	2/5
대구	2/8
부산	4/11
여수	4/9

해돋이 07:32 해질 17:21
달돋이 21:43 달짐 11:25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3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 청소도 좋아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20-30	목포	04:32	09:58
목포	30-30		17:24	22:50
순천	0-30	여수	12:07	05:28
여수	0-30		23:56	18:12

주간날씨

지역	12월 14일	15일	16일
전라(광주)	☁ (-2/1)	☁ (-2/8)	☁ (-2/1)
서울(경기도)	☁ (-10/-3)	☁ (-7/2)	☁ (-9/-2)
강원(영동(강릉))	☀ (-8/0)	☀ (-4/6)	☀ (-4/3)
충청(대전)	☁ (-9/-1)	☁ (-6/5)	☁ (-7/-1)
경상(대구)	☁ (-6/1)	☁ (-6/7)	☁ (-3/2)
제주(제주)	☁ (4/6)	☁ (5/11)	☁ (6/7)

▶ 날씨안내 : 국면없이 131

文 풍산개 '송강'·'곰이' 광주가 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수컷 '송강'과 암컷 '곰이'가 12일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광주시 산하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12일 오전 우치동물원 내 임시 놀이터에서 송강과 곰이를 공개했다.

지난 9월 경북대 수의과대학부속 동물병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뒤 전문사육사와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사육간의 건강 상태와 적응 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송강과 곰이의 새로운 실내 보금자리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층(옛 우치동물병원 진료실)에, 산책 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임시놀이터는 열대조류관과 큰물새장 사이 잔디밭에 마련됐다.

실내 사육시설에서 모습을 보인 송강과 곰이는 활기찬 모습으로 임시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송강은 외이염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곰이의 경우 신장결석을 앓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우치공원 측은 파악했다.

송강과 곰이를 야외에서 키울 경우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실내 사육시설에서 돌보기로 하고 도난을 대비한 방범창을 새로 설치했다.

대신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산책 등 야외 활동 때에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 새 보금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외 활동 때에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송강과 곰이는 2018년 9월 남북정상 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해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지내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전국 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을 맡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광주 우치동물원이 맡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받았다. 우치동물원은 관리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도난이나 분실 등에 대비해 송강과 곰이를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
치료·안정 후 시민에 공개

강기정 광주시장은 "송강과 곰이는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다.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다"며 "전문사육사와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주성학 수습기자

첨단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0kW 자가소비용, 연간 1만2천kg 탄소저감 효과 기대

광주 광산구는 12일 "첨단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kW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 사용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5400kW의 에너지 생산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1만2000kg의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 사회복지시설(민간 포함)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2021년에 요양원, 경로당 등 3개소에 총 18.4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광산구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관심이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미래산업과 (062-960-3674)에 문의하면 된다.

/이육근 기자

북구, 송년음악회 15일 개최...송가인 출연

광주 북구는 12일 "오는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오는 2023년 계묘년 신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었다. 특히 초청 가수로 광주예술평화학교 출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출연해 ▲한 많은 대동강 ▲물음표 ▲밤차에서 등 인기곡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에서, 오프라인은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365일 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봉선시장의 이모저모

- 새로워진 봉선시장 게이트
- 어린이 전통시장방문 프로그램
-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 2018전국우수시장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사랑의 김장나눔축제
- 나눔물품 기부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남구** 문의 : 062)650-2099